

# 광주시, 홈로봇가전 부품개발 기반 구축 ‘쟁걸음’

산업부 선정...국비 100억 확보  
2028년까지 사업비 150억 투입  
기업 중심 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

광주시가 홈로봇가전 지능형부품 개발 기반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산업기술기반구축혁신사업 신규과제 ‘홈로봇가전 지능형 부품개발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자되는 홈로봇가전 기반구축 사

업이다. 광주시의 지원을 기반으로 (재)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로봇융합연구원, 한국전자통신산업진흥회가 참여해 사업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에서 기업 수요 중심의 시험·실증 지원 기반 구축, 기술개발 혁신 방향 제시,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한 대응지원 등을 통해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20개소 육성 △2000억원 규모 생산 유발 △600명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홈로봇가전’은 로봇과 가전제품의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 가전제품에 로봇·지능화(AI) 등을 적용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가전, 주방·조리가전,

케어가전, 홈 디바이스 등 가정 내 사용되는 모든 범위의 가전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설계, 시제작)과 개발품의 △성능평가 △사용성 평가 △실증평가 △인증지원 △마케팅 등 개발에 대한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신규기획 제품개발, 보유제품의 개선·개발 중인 제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홈로봇가전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로봇, 가전 제조사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후방 산업인 소재·부품·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SW) 분야와 전방 산업인 시스템 통합·수요분야(제조·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완제품·부품의 설계, 응용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콘텐츠 제작·운영 등

다양한 연관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다층적 가치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추후 전후방산업의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대우위니아의 법정관리 등 지역 가전산업에 닥친 위기를 대응하고 급격한 기술변화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이 미래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홈로봇가전 지능형부품개발 전주기 지원 기반구축사업’ 수행 주체인 광주테크노파크는 가전, 로봇분야의 KOLAS 국제공인시험지원기반과 인공지능(AI) 데이터학습 개방형 연구실 등 보유 장비 87종 88대를 연계해 시험·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가전제품 부품

개발에 대한 전문기술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홈로봇가전의 표준개발·기술지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로봇부품개발·인력양성과 로봇부품융합을 지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부품설계, 시제작, 마케팅 등을 특화해 전주기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제공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으로 제품 개발·상용화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연구개발 비용 절감, 제품 신뢰도 향상 등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롯데백, ‘LP 팝업 스토어’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 와인 매장 앞 이벤트홀에서 다양한 LP와 턴테이블을 만나볼 수 있는 ‘LP 팝업 스토어’ 행사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디지털 시대에 클래식한 아날로그의 감성으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LP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디즈니 영화음악 컬렉션 및 재즈의 아이콘 쳇베커, 파리의 샹송 등 한정판 LP를 만나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최신 인기 앨범까지 다양한 컬렉션이 준비돼 있다. LP음악을 즐길 수 있는 턴테이블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기능 ‘업그레이드’

스마트 순환 운전 등 기능 추가

삼성전자가 10일부터 ‘스마트 포워드’를 통해 공기청정기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 대상 ‘스마트 순환 운전’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 포워드는 스마트싱스를 통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신제품이 아니라도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에 신규 업데이트되는 스마트 순환 운전은 에어컨을 가동한 후, 연동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실내 공간별 온도차가 감지되면 공기청정기 상단에 위치한 ‘팝업 청정 부스터’를 동작시켜 빠르게 실내 공기 순환을 돕는 기능이다.

팝업 청정 부스터를 작동하면 공기청정기의 청정 부스터가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빠르게 확산해 냉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마치 에어컨과 서큘레이터가 동시에 가동해 냉방 효과를 높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삼성전자 공기청정기인 비스포크 큐

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으로 여름철 가정에서는 서큘레이터까지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또 스마트 순환 운전 기능은 스마트싱스 ‘에어케어(Air Care)’ 서비스에서 ‘부스터 자동 운전’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손쉽게 추가할 수 있다. 모드, 부스터, 방향, 각도를 설정할 수 있고 7분간 작동 후 이전 모드로 복귀하는 등 빠른 실내 공기 순환을 위한 뛰어난 편의성을 적용했다.

이번 스마트 포워드 업데이트는 공기청정기 상단에 청정 부스터가 장착된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에서 리유저 필터를 사용하는 100㎡ 모델에 적용되며, 에어컨은 21년형 스탠드형 제품부터 연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퀵 리모트 기능도 7월부터는 2023년에 출시된 창문형 에어컨, 제습기, 스탠드·벽걸이 에어컨 일부 모델에도 스마트 포워드를 통해 추가, 올해 키친과 리빙 가전 제품군까지 확대 적용해 소비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 현대차, 광주 생산 ‘캐스퍼 일렉트릭’ 사전계약

1회 충전 315km 주행가능거리 확보  
보조금 등 반영시 2천만원 초중반대

현대차가 광주에서 생산되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인스퍼레이션 모델에 대한 사전계약을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운 프리미엄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로 확보한 인스퍼레이션 △아웃도어 환경을 즐기는 고객을 위해 오프로드 스타일 외장 디자인이 적용된 크로스 모델로 구성된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픽셀 그래픽을 적용한 다부진 디자인, 여유로운 도심주행이 가능한 315km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인스퍼레이션, 15인치 알로이휠 기준), 차급을 뛰어넘는 다양한 편의·안전 사양으로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 인스퍼레이션 모델에 대한 사전계약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및 크로스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캐스퍼 일렉트릭 인스퍼레이션 모델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3150만원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판



캐스퍼 일렉트릭.

현대차 제공

매 가격이 2990만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2000만원 초중반대의 금액으로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금액 상이)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사전계약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압구정로데오역(서울 강남구 소재) 앞에서 대규모 팝업 전시 공간 ‘캐스퍼 일렉트릭 스튜디오 압구정’을 운영한다.

또 유명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인 기안 84와 협업해 사전계약 기간동안 캐스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계약 후 출고를 진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안84가 디자인한 한정판 휴대폰 그립톡을 증정한다. 현장 사전계약 이후 출고를 진행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기안84가 디자인한 한정판 티셔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전계약 기간 동안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 음원 큐레이션 서비스 1개월 이용권’을 지급한다. **박소영 기자**

## 광주신세계, 초복 맞이 ‘여름 보양식’ 선봬

과일·백숙용 통닭 등 식재료

광주신세계는 초복을 앞두고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제철 과일부터 식재료까지 다양한 여름 보양식 식재료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5일까지 본관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딜리셔스 신세계’라는 주제로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제철 과일인 자두, 멜론, 수입 체리 등 과일류를 6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여름 대표 보양식으로 초복에 몸보신을 위해 많이 찾는 삼계탕의 식재료인 ‘동물복지 하립 통닭 백숙용’(1050g)과 지진몸의 원기 회복에 좋은 ‘프레시 삼겹살’ 등 돼지고기도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또 지하 1층 푸드마켓 수산 코너에서 12일부터 21일까지 ‘보양의 신세계’라는 테마로 여름 한철에만 맛볼 수 있는 식재료인 ‘여수 갯장어’를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인다.

특가 혜택은 앱을 통해 신세계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한 후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갯장어는 5~10월까지 연안으로 들어오는 한 철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식재료로, 어획량이 적어 산지가 아닌 도시에서 만나보기 힘들며 단백질, 비타민A, 칼륨, 칼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장어 샤브샤브는 여름철 별미로 ‘하모’라고도 불리며 여수 대표 10미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보양의 신세계’ 테마에 맞춰 특가 상품으로 민물장어, 전복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보양식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어 초복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여름철 보양식을 준비했다”며 “합리적인 가격대로 다양하게 준비한 만큼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